# 폭염 잊은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1500불자 발원

## 7월 6일 보은 법주사 일대서 순례 봉행

**석문, 상수도수원지 등 순례**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 발원**
**역대 최다 1500명 전국 운집**
**8월24일 은해사서 순례예정**

보은 법주사=노덕현 기자

수은주가 34도까지 치솟은 이른 무더위도 불교중흥과 세계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순례를 막을 수 없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7월 6일 법주사 일대에서 진행한 제4차 평화방생순례에는 순례 최다 인원인 1500여 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는 법주사 대웅보전 앞에서의 입재식으로 시작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대독을 통해 "올 한해 상월결사의 화두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며,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자는 것"이라며 "마음의 방생을 바탕으로 평화방생순례가 무한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뭇 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지는 시대에 걸맞는 수행과 신행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옳고 그름의 경계 속에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진다. 법주사 순례를 하며 평화방생순례의 본래 취지를 잘 참구하여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게 상월결사를 상징하는 죽비를 전했다. 이에 정도 스님은 "오늘 순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한국불교의 방향과 수행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록이자 역사가 될 것"이라며 "법주사에서 이러한 순례 인연이 이어지는 것과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순례에 앞서 대중들은 연경희 법주사 신도회장을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순례 의미를 새겼다.

입재식 이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법주사 대웅보전을 출발해 총지선원을 지나 석문을 반환점으로 다시 상수도수원지를 거쳐 미륵대불 앞까지 약 7km의 순례를 진행했다. 수원지에서 미륵대불까지는 저수지 둘레길을 통해 행선을 이어갔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왼쪽)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필두로 순례 대중이 행선하고 있다.

이른 무더위에도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마스크를 쓰고 묵언 순례를 이어갔으며, 거동이 불편한 불자들은 서로 부축해가며 무사히 순례를 진행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은 땀으로 온몸이 젖었지만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다.

순례 회향에 맞춰 청주 용화사를 비롯해 공림사, 미륵세계사, 덕주사 등에서 시원한 음료를 보시했으며, 긴 행렬이 모두 법주사로 들어올때까지 불교음악원이 음성공양을 올려 박수를 받았다.

김경화 연운사 총회장은 "상월결사 순례에 매달 참여하고 있다. 더운 날씨였지만 스님들과 함께 수행정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며 "원만회향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 행렬을 30여 충북지역 포교사들과 함께 안내한 김명동 포교사단 충북지역 단장은 "많은 인원에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며 "오늘 순례를 보며 새로운 불교전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회향식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의 평화방생축원기도와 함께 진오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다시 낭독했다.

순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 평화방생순례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여정"이라며 "부처님 법이 머무는 이곳 법주사에서 우리는 서로 화합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는 제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순례대중은 8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진행될 5차 평화방생순례에도 마음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회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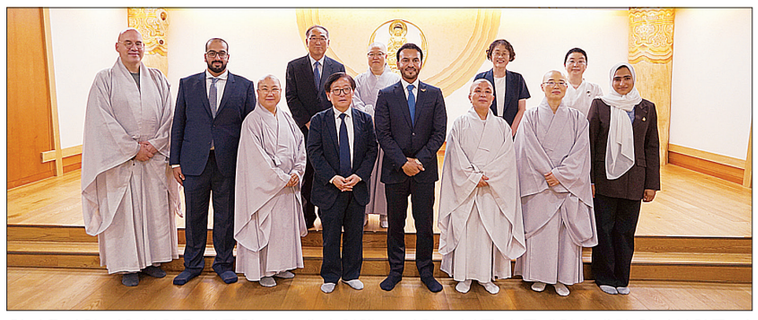
한편,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법원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각림 · 만당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 재가단체 지도자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동참했다.

또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진관사, 전등사, 연운사, 대덕사, 백담사, 호압사, 안국선원, 용화사 등 전국 각지에서 불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한마음선원 방문

## 6월 30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협의차 진행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방문한 UAE대사 일행과 선원 스님들이 국제학술대회 원만성취를 기원하고 있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6월 30일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 외교관 일행이 한마음선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을 방문한 이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아랍에미리트 주한 대사(H.E. Abdulla Saif Al Nuaimi, UAE Ambassador to Seoul) 등으로 이들은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과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의 안내로 도량 경내를 둘러보았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원에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에게 "이번 학술대회에 특별강연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종교를 넘어서 팬데믹 이후 지구촌의 공생과 통합, 평화는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래전부터 대행 선사께서는 지구 보전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해주셨다. 일체가 다 한마음에서 비롯됐고, 일체를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아끼며 살아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지구촌에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랍에미리트 측의 이번 방문은 올해 묘공당 대행 선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 마음, 과학, 종교' 특별강연 건으로 인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 명상, 과연 명약일까…불교진흥원 7월 강좌

## 7월 19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 미산 스님 · 김은미 교수 강사

명상의 최대 효과를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7월 19일 오후 7시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명상, 과연 명약일까'를 주제로 7월 화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7월 열릴 강좌 대상도서는 〈명상하는 뇌〉이며 강사로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김은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미산 스님은 1972년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봉암사와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했으며, 인도와 미얀마에서 초기 불교 명상 수행을 했다. 동국대 선학과 졸업 및 인도 뿌나 대학교에서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해 상도선원장,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은미 교수는 카이스트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IT경영학 석사 학위를,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라운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명상과학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MSC), 마음챙김에 기반한 우울 치료(MBCT)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진흥원은 "어떻게 해야 명상의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최신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한 〈명상하는 뇌〉의 번역자 2명을 초청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부처님 일대기, 레고 무비로 최초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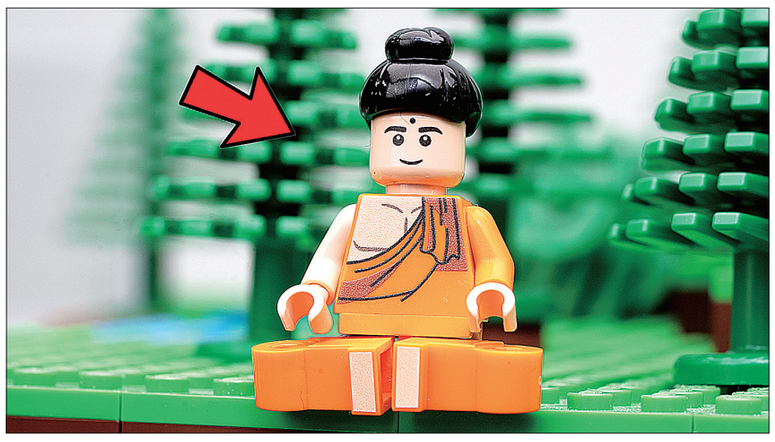
## 조계종 포교원,
## 7월 6일 유튜브서 공개

**레고 인플루언서 '꾸삐' 콜라보**
**어린이 포교 일환 제작을 시도**
**스톱모션 활용, CG 등 가미해**

시대를 초월한 장난감 레고를 소재로 만든 레고무비는 2014년 첫 개봉 당시 전세계 4억 6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레고 닌자고 무비' '레고 베트맨 무비' 등 외전격 후속작에 이어 2019년 '레고무비2' 까지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런 레고 무비에 활용된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 일대기를 보다 친숙하게 전하는 영상이 7월 6일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최근 신포교 콘텐츠 개발 사업 일환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레고 스톱모션' 영상 콘텐츠를 제작, 7월 6일 공개했다.


레고 스톱모션으로 제작된 부처님 일대기 영상의 한 장면.

포교원 유튜브 채널 및 '꾸삐KUPI'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번 영상은 국내 최초로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 일대기로 만들어졌다.

스톱모션은 영상 프레임마다 피사체를 이동시켜 촬영, 마치 움직이는 듯한 시각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바탕으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속에서 스톱모션을 활용해 손그림 · 레고 · 클레이 · 펠트 등을 소품으로 한 다양한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을 레고 피규어로 만들고, 여기에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더해 다채로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포교원의 이번 부처님 일대기 레고 영상은 국내 최고의 레고 인플루언서 '꾸삐KUPI'와 협업하여 만들었다.

꾸삐는 레고를 좋아하는 이른바 레고 덕후들에게는 꾸통령으로 불리는 이다. 구독자 62만여 명을 자랑하는 꾸삐는 어린이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레고를 직접 조립해 소개한다. 한국의 레고 고수들이나 컬렉터들을 만나는 콘텐츠도 있으며, 영상제작팀의 도움으로 레고 영상을 선보이기도 한다.

포교원은 "이번 영상은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불교에 접근하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2022년 불이상 수상자에 법장 스님 · 법륜회 · 구미래 소장

## 불이회, 제37회 수상자 발표
## 연구 · 실천 분야…특별상도

2022년 불이상 수상자에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법륜회,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선정됐다. 불이회는 6월 30일 제37회 불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이상은 불교계의 학술적 역량과 대승적 이념을 구현하는 실천적 정신을 고취하고자 연구와 실천 2개 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연구 분야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올해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취득한 법장 스님은 동아시아 고대 승려들의 계율 사상에 관해 여러 연구를 발표했으며 사상적 특성과 차이를 밝히는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동국대(경주) 강사, 조계종 교육아사리, 조계종 포교원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17년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술진흥상 최우수상, 2018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학회상, 2021년 은정학술상을 수상했다.실천 분야는 선행과 포교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장 스님



법륜회


구미래 소장

올해 실천분야 수상자에는 법륜회가 선정됐다. 1999년 설립된 부산불교연합회 개인택시 법륜회는 '달리는 법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포교는 물론, 결손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및 생필품 나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역 재가불자 단체로 봉사활동을 두루 펼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는 불교 민속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독보적인 활동을 해 온 학자에게 특별상을 추가로 시상하기로 하고 구미래 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불교 민속학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역할을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한국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수연구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2009), 〈불교 상제례 안내〉(2011), 〈한국불교의 일생의례〉(2012),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2015) 등이 있다.

연구 및 실천 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한국 불교 발전과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불이회(不二會)는 1985년 불이상을 제정, 한국 불교계의 참신하고 훌륭한 불교인들을 독려하고 한국 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 조계종, 산불 피해 울진 보광사에 1억 원 전달

지난 5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보광사에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이 전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보광사 주지 정혜 스님에게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조계종이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대형 산불 발생 직후 펼쳐온 긴급구호 모금캠페인에서 모연된 것이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는 5월 28일 울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웅전과 종각, 요사채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원행 스님은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면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종단에서 마련한 기금이 도량 복구 불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혜 스님은 "작은 말사까지 신경써줘 감사하다"면서 "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만큼, 불사에 매진해 염려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